

인생의 돋보기를 쓰고 들여다본다

동심의 길잡이를 따라 걷던 '책의 길'

김열규

인제대 교수 · 국문학

이건 번덕일까? 아니면 다양한 호기심일까? 나는 명색 학문에서도 셋길산책, 결눈질을 즐겨했다. 길도 외다지 뻘은 길은 바보 똥고집 같아서 싫다. 길은 가다가 굽어쳐야 하고 가닥도 나아 한다.

워낙 삶을 그렇게 살고 싶어 하다보니, 어깨 힘주고 눈 부라릴 '학문'에서도 굳이 곧대로는 피해다니다시피했다. 장난과 삶을 뒤죽박죽으로 하고 재미와 학문을 비빔질했다고 누가 눈쌀을 찌푸린다고 해도 바로 꺾듯하게 뜯 눈보다는 내 취미에 맞을 게 틀림없다.

그런 꼴이니, 학문에서 나는 스스로 '빨강모자의 소녀'라고 자처하고 있다. 숲 속의 셋길로 빠져들었다가 그만 늑대밥이 될 뻔했던 저 동화의 여주인공 '빨강모자의 소녀'는 나의 참 찰떡 궁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허구 속의 저 소녀와 명색 학문하는 나는 늘 백년해로하고 있다.

할머니 품 안에서의 원형적 독서

하긴, 할머니에게서 듣던 옛 이야기에서부터 이미 나의 민속학과 문학공부의 첫눈이 움뚧다고 말해야 한다. 안방 아랫목이 교실, 할머니 품이 책상인 그런 동화의 독서로 시작된 나의 두 학문의 길. 그것은 세상 어디에서도 다시는 없을 명문학교였다고 믿고 싶다.

나의 학문의 비로숨이, 개벽이 거기 있다면, 왜 할머니의 동화듣기를 나의 첫 독서라고 못 부를 것인가.

인간의 선의(善意)에 대한 절대적 신뢰, 세계의 섭리에 바칠 헌신적 경외감(敬畏感)이, 오직 인고(忍苦)와 피땀과 싸움으로 영글 수 있다는 신념은 그 최초의 독서에서 얻고 또 익힌 것. 아름다움이 곧 신앙이고 착함이 곧 신심(信心)이란 생각도 그래서 다져진 것이다.

그리하여 고독·가난·소의 등이 인간을 위한 꽃거름이요 살붙임이란 것을 동화의 주인공들과 나는 서로 새끼손가락을 걸고 다짐둘 수 있었다.

이것은 이룰테면 나의 '원형적 독서' 같은 것이다. 나 스스로의 삶이 그러하기를 소망했고, 내가 읽을 문학 또한 그 같기를

소망했기 때문이다. 내 삶을 읽어내는 일이나 내가 문학을 공부하는 일이 그래서 어디서 어깨동무를 하고 있어야 했다.

가령, 동화에서는 저 아슬한 피안(彼岸)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힘이 주인공을 충동질하고 드디어 행동을 일으키게 한다. 피안은 현실의 바위가 되어 구르고 상상은 실존의 발이 되어 내달리는 게 곧 동화적

민속학 · 문학 · 신화학
그리고 사머니즘에까지
허방댄 것이 내 학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미로 속의
해매임이라서 좋았고
숲속 길의 산책이어서
마음 흡족했다. 나는
문학적인 독서를 인생의
돋보기를 쓰고
들여다본 셈이다.

행위다. 요즘식으로 말해서 동화적 서사성(敘事性, narrativity)이라 그런 것이다.

훗날, 아주 훗날 릴케의 저 무시무시한 《두이노의 비가(悲歌)》 따위를 감히 읽어가면서 맞닥뜨린 그 무서운 말, 경탄할 개념인 순수한 모순도 나는 동화의 서사성

없이 생각할 수 없었다.

아무데도 속할 유과가 없을, 그래서 그 자신일 뿐인 절대의 단독자, 릴케가 장미를 두고 '순수한 모순' '누구의 잠도 아닌 잠을 자는 순수한 모순'이라 찬탄해마지 않았을 때, 그것은 무슨 나의 눈뜸을 채근했던 것일까? 삶과 죽음의 합일을 정점으로 하는 모순대립끼리의 평화로운 공존에 내가 눈떴다가보다 가까스로 눈치챘을 때, 어릴 적 내 동화의 주인공들은 손뼉을 치며 반겨주었다.

'순수모순'과 '방랑인'

이 점은 가령, G. 마르셀의 Homo Viator, '방랑인'이란 관념에 접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마르셀(Marcel)은 인간도 끊임없이 저 너머로 넘어가버리는 그 무엇에 관한 끊임없는 추적과 수색, 그것이 야말로 삶의 궤적이라고 생각했다. 그게 방향하는 인간의 모습이다.

다만 이름만 들었을 뿐, 들은 적이 있을 뿐, 본 적도 확인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 있는지도, 어떻게 갈지도 모르는 객체를 찾아나서는 동화 주인공이야말로 Homo Viator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마르셀이 릴케의 작품에 그의 책 한권을 바친 것은 우연일 수가 없다. 적어도 나의 독서편력에서는 ...

생과 죽음을 주된 대상으로 삼은 릴케의 순수모순은 나로 하여금 E.몽크의

그림에 넋을 팔게 만들었고 G. 말리의 음악에 나의 시간의 물레를 몽땅 내다바치게 하기도 하였다. 불교가 역설하는 저 불이문(不二門) 안에 이들 서구의 정신들이 정령처럼, 신들처럼 좌정하고 있으리라 생각에 젖은 적도 있다.

마르셀 식의 '방랑인'의 개념은 F. 카프카의 《성》을 읽는 길잡이가 되었고, 심지어 이창준의 《이어도》를 탐독할 때도 개념상만이 아니고 감각상으로도 영향을 끼쳤다.

그러는 오락가락, 그 바자니기, 그 해매기가 이룰테면 내가 가장 심취한 독서의 대도(大道) 아닌 미로(迷路)였음을 나는 지금도 기뻐하고 있다. 내 독서에 굳이 길이 나 있었다면 지도에 있을 그런 길은 아니었다. 뒤뚱아보면 문득 사라지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또 엇설키기도 하는 그 '숲속의 길' 같은 것이었음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정거장에 나가서 표를 사들기만 하면 그뿐, 어김없이 목적지에 우리를 실어다줄 기차여행 같은 게 인생이라면, 도중에 스스로 뛰어내리겠노라고 호언장담한



일러스트레이션/노희성

한 물리학자의 감동적인 삶의 표정

《미스터 파인만》을 읽고

김태형 · 시인

《지하실에서 보는 편지》(도스토예프스키)의 삼류 말단공무원의 말은 이렇다면 나의 숲의 길에 핀 들꽃이요, 산새소리다.

민속학 · 문학 · 신화학, 그리고 사머니즘에까지 허겁지겁이고 갈팡질팡인 채로 허방댄 것이 내 학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미로 속의 헤매임이라서 좋았고 숲 속의 길의 산책이어서 마음 흡족했다고 지금도 사뭇 태평스럽다.

그러는 사이 '순수한 모순'이며 '방랑인' — 그런 관념은 내 삶이 그렇기를 바라는 신앙적일 만큼의 지표가 되었다. 학문에보다는 내 인간적 삶에서 그것들은 동화의 주인공처럼 늘 나의 친구가 되기 족했다.

삶과 어깨동무한 학문

그러다가 삶의 질의 모색과 학문하기가 어찌면 어디선가 맞닥뜨릴 숲길 아니면, 애초부터 어깨동무하고 나란히 숲길을 가는 것과 같다는 생각에 자주자주 젖곤 했다. 그것은 삶의 열락이나 학문의 축복이었다. 나는 문학적인 독서를 인생의 돋보기를 쓰고 들여다본 셈이다.

성정이 워낙 어린 탓인지 동화를 독서하던 그 동심의 길잡이를 따라 노년의 길을 가고 있는 요즘, 자연이 독서의 자리에 끼어드는 정도며 깊이가 커지고 넓어져가고 있다. 차츰 사람의 말을 못알아 듣는 정도가 커지면 하늘의 빛, 바다의 너울의 울음, 산빛의 소스라침 등이 내 넓지 않은 서안(書案)에 들어왔기를 바라고 있다. 그 독서의 끝자락에서는 하늘, 바다를 그대로 글방으로 삼고 싶다. 읽어 오던 모든 책들을 거기 묻고 만 그 뒤의 공백 그 자체로서 나는 하늘이며 바다와 더불어 살고 싶다. 이럴 때마다 내가 되새기곤 하는 윌덜린의 시구절이 있다.

“나는 어릴 적부터 사람의 말엔 서툴렀다. 그러나 별과 바람의 소리에는 무척 귀억어 있었다.” ❖

리처드 필립스 파인만 교수. '맨해튼 프로젝트'로 불리었던 원자폭탄 제조 연구에 참여한 과학자, 양자전자기학 이론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과학자인 그는 이제 우리에게 '미스터 파인만'이라는 친근한 호칭으로 불린다. 그는 연구실에 틀어박혀 복잡한 물리학 공식을 가득 적어놓고, 학회 발표를 위해 논문의 문장을 손보는 흰 가운의 고리타분한 물리학자가 아닌 우리들 삶의 한 감동적인 표정을 보여준 거인이다.

그의 아버지는 일찍이 브리태니카 백과사전을 읽어주며 그 내용들을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어린 파인만에게 설명해주었다. 어린 아들은 오히려 아버지의 과학적 설명을 좀더 풍부하게 해석하는 재능을 보였다. 파인만의 과학자로서의 기질은, 한 랍비가 들려준 충격적인 이야기가 사실은 지어낸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울음을 터뜨린 장면에서도 드러난다. 그의 여자 친구 아알린의 철학 숙제를 함께 고민하면서 데카르트의 논리를 과학적으로 부정하며 스스로의 사고체계를 세우는 명장면에서는 과학자로서의 근성을 엿볼 수 있다.

노벨상 수상 후에도 캘텍에서 강의를 하고 상킹 머신이라는 컴퓨터 제조회사의 자문일을 하고 있었던 파인만 교수는 86년 우주왕복선 챌린저호의 사

양자 전자기학 이론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과학자를

이제 '미스터 파인만'이라는

친근한 호칭으로 부른다.

관리자와 기술자의 의견차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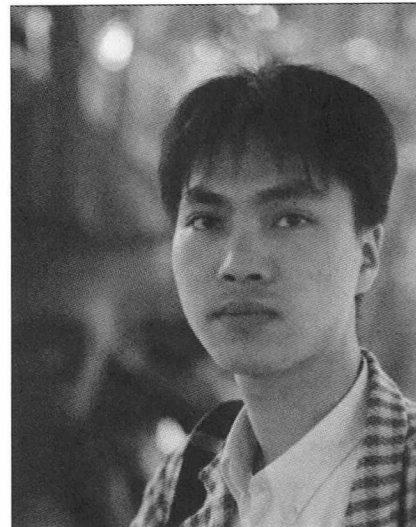
침착하고 끈질기게 추적하는

힘은 노학자의 예사롭지 않은

연륜에 뿌리를 둔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감동적인

표정을 보여주기엔 충분하다.



김태형씨.

고조사위원으로 나서게 된다. 로켓 부스터에 장착되는 O-링이 기온 차에 따라 변하는 심각한 결함을 발견하고, 여러 기술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우주항공산업의 감추어진 여러 모순들을 함께 추적해간다.

변호사 출신인 윌리엄 로저스의 제재와 사고율이 십만분의 일이라고 주장하는 나사 고위관리들, 이러한 난관에 부딪치는 파인만 교수는 특유의 침착하고 집요한 과학자로서의 근성을 발휘한다. 이러한 장면을 지켜보며 우리는 젊은 시절의 파인만 교수가 그의 아내 아알린이 병에 걸렸을 때 의사들의 잘못된 검사 결과에 대해 자신의 허술함을 자책하는 장면을 떠올리게 된다. 결국 아알린은 임파선 결핵으로 죽음을 맞이했다. 파인만 교수는 이러한 경험 때문인지 챌린저호 폭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

치의 실수도 없이 자신의 주관을 밀고 나가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죽은 아내 아알린의 병명이 단지 의사들의 추측만으로 '해지킨씨 병'이라는 오진이 나왔을 때, 이에 반대하며 아알린의 상태를 체크하려던 한 젊은 의사의 안타까운 노력을 발견하지 못했던 파인만 교수.

이러한 경험을 통해 파인만 교수는 국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야만 하는 나사의 고충과 이에 따른 여러 기술적 난점들을 파헤쳐가는 과정에서 부딪치는 엇갈린 이해 관계를 극복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관리자와 기술자의 의견차가 약 300배 이상에 이르는 모순을 침착하고 끈질기게 추적하는 힘은 한 노학자의 예사롭지 않은 연륜에 그 뿌리가 닿아 있다.

주변 인물들을 화폭에 담고, 두번째 아내 그웨넷과 자녀들에게 다정한 편지를 쓰는 한 물리학자의 삶은 권력 싸움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위장하는 워싱턴 정치 일변지에서 부드러운 칼의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한다.

주머니 속의 송곳이 더 무섭다는 말이 있지만(재능이 있다면 언젠가는 빛을 본다 속뜻), 그 주머니 속의 송곳이 여러 지난한 경험을 통해 그 어떤 것보다 강인하고 부드러운 칼날을 세우게 되는지 이 한 권의 책은 유감없이 또 감동적으로 보여준다. ❖

사이언스북스/A5신/318면/8000원

